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요한 14,13.15)

(삼위일체), 호세 데 리베라, 마드리드 프라도 국립박물관, 스페인

[제1독서] ..... 잠언 8,22-31

[화답송] ..... 시편 8,4-5.6-7.8-9  
(© 2ㄱㄴ)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주 - 님 저희 주 님 온 땅에 당신이 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 까

-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빛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 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 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
-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

[제2독서] ..... 로마 5,1-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복음] ..... 요한 16,12-15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80] 거룩하신 성삼이여
  - 봉헌성가: [342] 제물 드리니
  - 성체성가: [156] 한 말씀만 하소서 [499] 만찬의 신비
  - 파견성가: [81] 영광의 주 성삼위

##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2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14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5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 have much more to tell you, but you cannot bear it now.

But when he comes, the Spirit of truth,

he will guide you to all truth.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but he will speak what he hears,

and will declare to you the things that are coming.

He will glorify me,

because he will take from what is mine and declare it to you.

Everything that the Father has is mine;

for this reason I told you that he will take from what is mine

and declare it to you.”

###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교회는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초기 교회 때부터 이어져 왔다.

삼위일체 대축일이 로마 전례력에 들어온 것은 14세기, 요한 22세 교황 때였다.

### ✠묵상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구별되지만 한 분이시라는 삼위일체의 교리는, 일단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는 하느님 생명과 사랑의 움직임이기에 단순히 하느님 안에서의 신비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당신을 계시하시며 우리를 그 신비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성경에서 거듭 말하고 있듯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참사랑이란 자신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것이고, 그에게 가서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하느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계시된 사건, 그리스도의 육화 사건 안에서 발견합니다. 성부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실 때 성자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이 되신 성자께서는 십자가상 죽음으로 당신이 성부께 받은 것을 온전히 성부께 돌려 드리십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 간의 완벽한 상호 증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고, 거기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파견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생겨난 공통의 사랑이 성령이시며, 그 성령께서는 이제 하느님 안에 머물던 사랑의 신비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도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성부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나’와 ‘너’가 만나서 관계를 이루고 사랑으로 일치하면서도 결코 한 쪽에 치우치거나 개성을 포기하는 일 없이, 서로의 존중 속에 하나가 되어 결국 ‘우리’가 되는 공동체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느님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겸손과 흠숭으로 이 신비를 경축하며, 그 신비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성근 사바 신부)

##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

호세 데 리베라(Jose de Ribera, 1591-1652)는 1635년경에 <삼위일체>를 그린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삼위일체에 근거한다. 가톨릭 신앙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고, 그리스도인은 모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이며 신앙의 근원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가톨릭 신앙은 이러하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삼위로, 삼위를 한 분의 하느님으로 흠송하되 각 위격을 혼동하지 않으며, 그 실체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다. 성부의 위격이 다르고 성자의 위격이 다르고 성령의 위격이 다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천주성은 하나이고, 그 영광은 동일하고, 그 위엄은 다 같이 영원하다.”(제266항)

리베라의 그림은 삼위일체 교리를 반영하고 있다. 삼위일체를 상징하듯 성부의 머리에는 후광으로 삼각형이 있다. 삼각은 세 개의 각을 이루지만 본체로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형상은 셋이지만 본체로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

백발의 성부 하느님은 사랑을 상징하는 붉은 빛 망토를 그림 가득히 휘날리며 아들 예수님의 가시관을 벗기며 슬픈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분의 눈빛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다.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외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게 했단다. 그런데 말이다. 아들 예수의 고통이 내 고통이었던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의 머리에서 가시관을 벗기며 내 아들의 아픔을 깊이 동참하고 있단다.” 성부는 따뜻한 천상의 빛 속에 있는 반면, 그 아래 암흑의 공간에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져 생명의 기운을 잃고 힘없이 늘어져 모든 것을 성부 하느님의 두 손에 맡기고 있고, 그 밑에 양쪽으로 흰 수의를 붙잡고 있는 아기 천사들은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 있다. 예수님의 흰 수의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느님의 붉은 망토와 수평을 이룬다는 것이 놀랍고, 그 수의가 암흑의 세상을 밝히는 것이 신기하다.



<삼위일체>, 호세 데 리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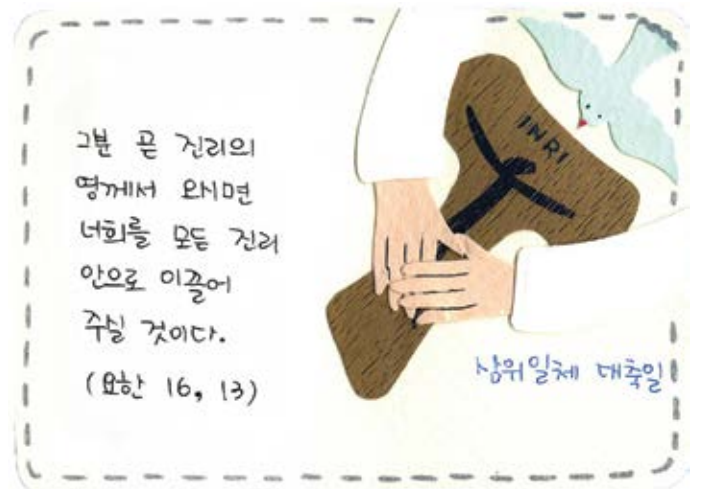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한 당신의 모습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 주어 세상의 빛이 되었다. 양편으로 뻗은 성자의 두 팔은 그의 머리 위에 있는 비둘기 형상을 한 성령의 활짝 핀 날개 모습과 닮게 표현되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임을 암시하고 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아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요한 14,16.20-21.26)

성부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보호자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쉽게 믿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Feast of **THE MOST HOLY TRINITY** June 16, 2019

*The Blessed Trinity*

**T**oday we celebrate the feast day of the Blessed Trinity. The word Trinity is a title for God that tells us that He is three Persons in one God.

Before Jesus came, the people didn't know that God was Trinity. The Israelites knew that there was only one God, but they didn't know very much about Him. Jesus showed the people that there were three Persons in God when He taught them about Himself and the Father and the Holy Spirit.



The three Persons in the Blessed Trinity are all equal but different. We cannot understand this, but we believe it because Jesus taught it. It is one of the Mysteries of our Faith.

What does the Holy Trinity do for us? We know that God the Father made everything and we are intended to go back to Him. The Holy spirit guides us towards Him, and Jesus is the way.

Every time you make the Sign of the Cross or say the "Glory Be" you are praying to the Blessed Trinity. <<https://www.thekidsbulletin.com>>

CCD News

**Outdoor MASS**

June 2, 2019



Dear CCD Families,  
As the end of the school year has arrived, last two Sundays were filled with lots of fun and great memories. Our 5th annual CCD Outdoor Mass & End-of-Year Picnic was held at Frying Pan Farm Pavilion in Herndon on June 2nd. The day started with Fr. Kang celebrating Mass attended by approximate 180 of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After Mass, students enjoyed picnic lunch provided by the PTO and Room Parents group followed by team building games. Additionally, this past Sunday, each class held the yearend party. Parents were invited to the party as well and they celebrated a wonderful school year with their children. At the end of Mass, Fr. Kang awarded students who have exhibited Catholic virtues and acted as good role-models throughout the school year.

On behalf of Fr. Kang and the entire CCD teachers and the staffs, I'd like to thank the parish Youth Ministry, PTO board member and Parents for all the help and support shown these past 10 months. In closing, I take this opportunity to congratulate all 8th grade students who are soon to become members of the CYO community. I wish all CCD families a very happy, safe and blessed summer.

In Him,

- *Yunchong Boyle(Clare), CCD Asst. Principal*

*Congrats*  
**SENIOR BANQUET 2019**

June 8, 2019



**S**enior banquet was such a good time thanks to the hard work of the juniors, sophomores, freshmen, and parents. There were so many memorable moments, but some of my favorites were the food relay, the parent videos, and the open mic. Our seniors this year are incredibly kindhearted and talented young people who have received so much love from and shown great love to CYO. I can't wait to see where in life God takes each of them, and I hope that they come back often to visit!  
- *Jennifer Hwang, 12<sup>th</sup> Grade Teacher*

It was a fun night, and it was a good way to wrap up our four years at CYO. Thank you everyone who made it possible.

- *SEONU KIM, 12<sup>th</sup> Grade*

Over the past four years, CYO had always been a place where I could see the people I trust and love. From the other students and the teachers to my friends, they have become like my own brothers and sisters. I will always be grateful to SPC's CYO and will always come back to help.

- *PETER SHIN, 12<sup>th</sup> Grade*

I had a very fun and memorable time as a senior. I am thankful for my parents and all the CYO teachers that guided me throughout high school. Thank you all for making my 4 years in CYO wonderful.

- *KEVIN KIM, 12<sup>th</sup> Grade*



**알링턴 교구 사제 서품식**

알링턴 교구 사제 서품식이 지난 6월 8일(토) 오전 11시에 성 토마스 모어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되었다. 새 사제는 Nicholas F. Blank, Edouard B. Guilloux, Sean T. Koehr, Christopher W. Nyce 신부님이며, 본당에서는 강우영 암브로시오 보좌 신부님과 아홉 명의 복사단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성소후원회 봉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 ○ 성인 견진성사 축하합니다!



2019년 성인 견진 예식이 지난 6월 9일(일) 성 토마스 모어 주교좌 성당에서 있었다. 마이클 버빗지 주교님과 폴 로바디 주교님의 집전하에 거행된 미사에 알린 교구 본당의 많은 신자들이 참석했으며 우리 본당에서는 14명의 신자들이 견진성사의 은총을 받았다.

버빗지 주교는 “오늘 이 자리는 하느님이 우리 각자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여러분은 성령 강림 대축일에 견진 성사를 받아 더욱 큰 축복 속에 있다”고 축하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주 성체를 받아 모시며,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여야 한다”며 성령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며 축복했다.

## ○ 꾸르실료 본당 탁자 청소

평신도 사도직 꾸르실료는 지난 9일(일) 10시 미사 후 매년 실행하는 탁자청소를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꾸르실료 선후배들이 우비를 입고 한마음으로 탁자를 청소하는 모습은 마치 성령의 단비를 맞으며 성령을 통해 공동선을 이루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행하여져서 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봉사 후에는 준비한 점심을 먹으며 친교와 봉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꾸르실료 홍보팀)



## 교황님의 6월 기도 지향

“사제들이 겸소하고 겸손한 삶으로 가장 가난한 이들과 연대를 이루는 데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도록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6월 한 달 동안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권고했다. 교황은 “모두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겸손과 기쁨으로 자신을 봉헌하면서 끝까지 모험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황은 “사제들은 모두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데 가까이에서 준비된 사제들”이라며 “사제들의 모범과 그들의 증거에 감사를 드리자”고 덧붙였다.

교황은 지난 2014년 3월 6일 로마의 본당 신부들과 만남에서 착한 목자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사제란 “그의 신자들과 가까이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비와 연민의 인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제는 “자비와 연민을 느끼는 마음을 지니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황은 지난 2018년 3월 29일 성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 강론에서 하느님 백성은 “착한 목자의 애정과 친근함으로, 자신의 신자들 가운데서 걸어가는” 사제들에게서 “예수님 앞에서만 느끼는 무엇인가”를, 곧 어떤 특별한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교회 통계 연감’에 포함된 최신 집계에 따르면, 2017년 세계 성직자 수는 41만4582명이다. 또 2017년 사제 성소자인 신학생 수는 11만5328명이다. 대륙별 비율은 아시아가 29.8%로 가장 높았고 아메리카 27.3%, 아프리카 27.1%, 유럽이 14.9%로 뒤를 이었다. <<http://www.vaticannews.va>>

##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 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1 첫 영성체식**

- 일시: 6월 16일(일) 오전 11:40 미사 중
- 축하식: 미사 후 하상관(#106)
- 첫 영성체를 하는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효도 한마당 행사**

- 일시: 6월 16일(일) 오전 11:40, 친교실
-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르신들(안나회, 하상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정성껏 효도 한마당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에서 시니어 아파트로 가는 버스 시간은 오후 2:30 입니다.)

**3 2019 - 2020년 주일학교 등록**

- 등록비: \$80 / 6월 16일 마감
- 장소: 하상관 교무실 (일요일 오전 10시 - 오전 11:30)

**4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6월 16일(일) 오전 11:30(친교실)

**5 사도 임원회의**

- 일시: 6월 20일(목) 오후 8시(B-1,2)

**6 알링턴 교구 주교 집전 다민족 미사 및 성가대원 모집**

- 다민족 미사: 6월 21일(금) 오후 7시
- 장소: St. James Catholic Church (905 Park Ave. Falls Church, VA 22046)
- 다민족 미사를 위해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뜻깊은 행사에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후 다민족 음식을 나누며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 문의: 김문자 마리아 (703)615-9910

**7 유아세례**

- 일시: 6월 23일(일) 오후 3시, 성당
- 신청: 6월 19일(수)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무실 (703)968-3010

**8 K of C 월례회의**

- 일시: 6월 23일(일) 오전 11:30(A-2)

**9 요한회 월례회의**

- 일시: 6월 23일(일) 오전 11:30(B-2)

**10 울뜨레아 회합**

- 일시: 6월 28일(금) 평일 미사 후(A-1,2,3)
- 문의: 이명숙 벨리나 (703)338-7881

**11 유언 상속에 관한 세미나(교육부 주관)**

- 일시: 6월 30일(일) 오전 11:30(A-1,2)
- 주제: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률
- 강사: 이 그레고리오 변호사
- 문의: 안윤민 바실리오 교육부장 (571)275-0691

**12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뉴저지 일일 성지 순례**

- 자연속에서 티없으신 성모 성심과 함께하는 은총의 자리에 교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7월 13일(토) 오전 5시 출발 / 오후 10시 도착
- 장소: 뉴저지 파티마 성지 (The Shrine of the Immaculate Heart of Mary)
- 참가비: 80불(아침, 점심과 식당에서 저녁식사비 포함)
- 신청: 친교실(신청순 52명) (참가비는 현금으로 신청서와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이 루카 (703)254-7963

**13 동중부 푸르실로 지도신부배 골프대회**

- 일시: 7월 14일(일) 오후 1시
- 장소: Pleasant Valley Golf Club
- Green Fee: \$100(점심 포함)
- 문의: 서경원 (571)236-7071

**CYO WorkCamp 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성인 Crew Leader 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CYO Work Camp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성인 Crew Leader들이 6월 22일(토)부터 6월 28일(금)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봉사를 떠납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봉사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WorkCamp 참가 학생 명단**

Alyssa Chang, Peter Chu, Sarah Han, Matthew Hargrave, Saechaan Hong, Robin Hwang, Dylan Jang, Hee Jean Joo, Isabell Kim, Kyoungwon Kim, Paul Rhee, James Sunwoo, Eric Whang, Hyein Yoo, Jaehyeong Yoo

**2019년 WorkCamp Crew Leader, Contractor, Security (성인)**

- Crew Leader : Peter Han, Jihey Hur, Yong Woo Kwon
- Contractor : Jacob Lee, Jae Lee, Hee Rhee, Myung Yang, Hyewon Hargrave
- Security : Diana Joo, Jaeho Kim, Young Rhee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6월 16일(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효도 한마당(오전 11:30, 친교실),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4), 첫 영성체(오전 11:40 미사 중), 첫 영성체 축하식(하상관 #106)
17일(월)	연중 제11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하상 한국학교 개학
18일(화)	연중 제11주간	성령 기도회(오후 8시, 하상관),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하상관)
19일(수)	연중 제11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20일(목)	연중 제11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사도 임원회의(오후 8시)
21일(금)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 수도자 기념일	평일미사(오후 7:30), 알링턴 교구 다민족 미사(오후 7시)
22일(토)	연중 제11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CYO WorkCamp(28일까지)
6월 23일(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요한회 모임(오전 11:30, B-2), KofC 모임(오전 11:30, B-1,2), 바오로회 모임(오후 1시), 파티마회원 나눔터 사용(오전 11:30-오후 3시), 유아세례 (오후 3시, 성당)

**Happy Father's Day**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 11주간 : 시편 55-63, 1 코린 14

**KACM TV 하이라이트**

6월 20일(목) 오후 5:00-6:00 Cox Ch.30, 830  
 6월 21일(금) 저녁 8:00-9:00 Fics Ch. 30  
 6월 23일(일) 오전 6:00-7:00

- 가톨릭 뉴스
- 특강: 제11차 동중부 성령대회 특강 / 전동혁 베드로 신부 "승리하는 성령" (2)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6월 9일(성령강림 대축일)

주일헌금	\$8,209.00
교무금	\$13,290.00
교무금(크레딧카드)	\$3,570.00
특별헌금	\$200.00
2차헌금	\$0.00
<b>합계</b>	<b>\$25,269.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분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너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오규희(발바라), 정맹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진(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민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점마),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종재(거버너),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분인(론지노), 이슬(루시아), 임현석(아비보), 손범기(펠릭스),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윤박창(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진(엔토니), 심용현(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헬(마카렐라), 최용승(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주서(요안나), 김성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미나시오), 제민수 리(효찬)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토) 703-508-7743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다니엘) 703-266-198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b> 이경태 요셉 703-785-4494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 Mercedes-Benz</b>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암 보험·메디케어 장기 간호 보험</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페어팩스 부동산</b>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b>하얀나무치과</b>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프렌즈 홈/데이케어</b> 간병, 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문의: 마리아 막달레나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424-7533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b>Oh My Dog</b>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스킨 스튜디오</b> 일인 피부 관리실 유연수(안젤라) 703-507-0053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ASSA 종합보험</b>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b>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b>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b>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b>HYN 부동산</b>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원 통증·재활</b>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b>박정훈(요한) 치과</b> Family Dentistry 703-679-8959	<b>Commercial 김준부동산</b>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